

증례Ⅳ - 4

**상악 폐색장치(Obturator)와 하악 전악 수복을 통한
심미적, 기능적 보철 수복**

장영배, 우이형, 최부병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임플랜트는 보철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정성, 가철성 보철에 두루 이용되고 있다. 임플랜트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식립 후 골유착이 일어날 때까지 장기간의 임시보철물의 장착이 불가피한 단점이 있다. 임시보철물로서 임시치관을 레진으로 인접치에 접착하거나 가철성 국소의치형 보철물이 많이 사용되지만, 다수치의 경우 레진 접착형 임시 치관은 시행하기 어렵고, 가철성 국소의치형 보철물은 내면을 조직이장재로 이장한다고 하더라도 골유착이 일어나기 전에 임플랜트에 자극이 가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편 임플랜트를 이용한 임시 수복물의 사용은, 다수치의 임플랜트 식립의 경우 식립된 임플랜트가 골유착 되기 전에 유해한 자극을 받는 것을 피하게 하고, 가철성 임시수복물의 불편감을 없애준다.

본 증례의 환자는 외상에 의한 하악 전치부 상실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32, 31, 41, 42가 발거된 상태였으며, 상악 중절치가 정출되어 있었으며, 상악전치부의 동요도를 보이고 있었다. 구치부 교합은 이상이 없었으며, 하악 양측 견치는 중등도의 치은 퇴축을 보이고 있었다.

치료를 통해 하악 전치부의 상실부위의 보철 수복을 시행하여 심미성을 회복하고, 상실한 전방 유도의 형성으로 기능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치료 방법으로 bridge와 임플랜트를 설명하였으며 환자가 임플랜트 치료를 원하여 임플랜트를 식립하기로 하였다. 외상으로 인한 골 소실이 있으나 환자가 다른 외과적 처치를 원하지 않으며, 하악 전치부라서 심미적으로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골의 다른 처치 없이 임플랜트를 식립하기로 하였다.

진단 wax-up을 시행 후 적절한 위치에 임플랜트를 식립하기 위해 surgical template를 제작하였으며 임시 수복의 방법으로 임플랜트를 보호하기 위한 편 임플랜트를 이용한 임시수복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상악 전치부의 돌출과 저도의 동요도는 자연치 삭제와 레진 splinting을 시행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적절한 구치부 이개를 갖는 전방 유도의 형성과 치은과의 조화를 확인하기 위해 골 유착 후 임플랜트에 지지를 받는 임시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편 임플랜트를 사용한 임시 보철물의 제작을 통하여 골유착 기간동안 임플랜트에의 유해한 자극을 방지하고, 가철성 임시 보철물의 불편감을 해소하였으며, 전방 운동시 적절한 구치부 이개를 갖는 보철물의 제작을 통하여 기능성을 회복하였으며, 이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이에 증례를 발표하고자 한다.